

제 156주년

地 日 記 念



포덕 160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제29장 지일기념가	14
삼경	17
해월 최시형 신사 약력	20
해월신사 존영	22
이천식천 환경보존 행사 식순	23
환경선언문	24
문화공연	26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삼경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29장 지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이천식천 환경보존 행사]

- 천도교 환경선언문 낭독
- 문화공연(역사어린이합창단)
 - 해월 최시형
 - 환경파수꾼
- 가두홍보 : 홍보책자(환경보존) / 기념품 배포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6주년 지일기념일입니다. 156년 전 대신사님으로 부터 도통을 전수받으신 신사님을 기리며 그 뜻을 더욱 현창하고 나아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무극대도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세상에 펴기 위해 신사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님께서서는 일찍이 조실부모하시고 가난과 역경 속에

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35세 때 대신사님을 뵈고 무극대도에 감명 받으시어 입도한 이후로는 정성 공경 믿음으로 천도를 닦으시고 후천개벽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신사님은 승통 후 ‘최보따리’라는 별칭 그대로 36년간의 고난의 도피생활 중에서도 당시 부패한 관료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서민들에게는 반상(班常)의 차별이 없는 사인여천의 평등사회를 지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땅의 약자이자 소외된 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셨습니다.

대신사님이 시천주(侍天主)라는 ‘모심’의 진리를 알려 주셨다면 신사님은 모심을 ‘섬김’의 실천윤리로서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후학들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님을 실천궁행하셨던 한울님으로 인식하고 그 가르침을 귀감으로 삼아 존경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신사님의 모심의 진리를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확대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인여천(事人如天)이요, 사람 대하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천도의 길이였습니다.

조선시대 천대받고 억압받으며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천민들과 여성,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신사님에게는 한울님의 분신이였기에 그들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기에 신사님은 가시는 길마다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신사님은 가시는 곳 마다 짚신을 삼고 새끼를 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한울님, 도피 중에도 뒷사람들을 위하여 감나무를 심었던 한울님, 하늘과 땅을 합부로 대하지 말고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대하라고 하셨던 한울님, 또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하늘을 나는 새, 기는 짐

승도 다 한울님을 모신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으며,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 같이하라”고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이며 실천가였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신사님은 학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
습니다. 대신사님의 위대한 학문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많은 포덕이 이루어졌는지 경
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동학에 입
도하였겠습니까. 대신사님께서 순도하신 이후 자취를 찾
아보기 힘들었던 동학교도들이 이후 수십만 아니 백만 이
상의 도인으로 확대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였을까를 항상
자문해 봅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성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의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외모보다도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스스로 우리나라와 존경심이 들게 하는 실천에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사님의 고난의 도피생활 가운데서 발생한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시천주의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사인여천으로 직접 실천하며 증명하신 행동에서 사람들은 감동했던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지금 교회 내외에서 우리 도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두가 충심에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천도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솔된 마음에서 우려난 걱정입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앙총부에 문제가 있다든가, 각자위심(各自爲心)하는 교인들 때문이라는 등 저마다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포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걱정합니다. 성과 여부를 떠나서 역대 집행부 모두 이 문제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단발전의 저해 요인들을 검증해내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현기사의 기능강화를 통한 신앙회복과 교육, 연구기능의 강화와 차세대 지도자, 건강한 인재양성, 교단 내 재단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신뢰회복과 교단의 화합 등도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지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신사님의 높은 덕과 행적을 추모하는 이유는 신사님을 본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신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실천의 도가 부족했

다는 점을 가슴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당시보다도 월등히 높아진 교육수준과 사회 환경임에도 오늘날 포덕이 부실한 것은 나의 실천이 주변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로만 천도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기 보다는 남의 허물을 탓할 궁리만을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남에게 상처를 주어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 도는 성경신을 바탕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하신 위대한 스승님을 모신 우리는 분명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사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주변에 감동을 주었고 감명을 주었기에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신봉하는 종단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지일기념일은 나는 과연 신사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입니다. 스스로 한울님임을 자각해 실천하는 한울님이 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지일기념일의 숭고한 의미일 것입니다. 동덕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사님의 실천성이 되살아 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포덕 160(2019)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을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반 어 --
 3. 이 어 반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건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후렴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피 워 를 - 보 세 -

三敬(삼경)

사람은 첫째로 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先師의 創明하신 道法이라. 敬天의 原理를 모르는 사람은 眞理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하면 한울은 眞理의 衷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敬天은 결단코 虛空을 向하여 上帝를 恭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恭敬함이 곧 敬天의 道를 바르게 하는 길이니, 「吾心不敬이 卽 天地不敬이라」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爲하여 犧牲하는 마음, 世上을 爲하여 義務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니라.

둘째는 敬人이니 敬天은 敬人の 行爲에 의지하여 事實로 그 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敬天만 있고 敬人이 없으면 이는 農事의 理致는 알되 實地로 種子를 땅에 뿌리지 않는 行爲와 같으니, 道 닦는 자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道를 實行하는 者니라. 道家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降

臨하였다 이르라 하였으니, 사람을恭敬치 하니하고 鬼神을恭敬하여 무슨 實效가 있겠느냐. 愚俗에 鬼神을恭敬할 줄은 알되 사람은 賤待하나니, 이것은 죽은 父母의 魂은恭敬하되 산 父母는 賤待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別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恭敬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解渴을 求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恭敬함으로써 道德의 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天地氣化의 德에 合一될 수 있나니라.

사람은 첫째로 한울을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한울을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울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한울을 공경함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한울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

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울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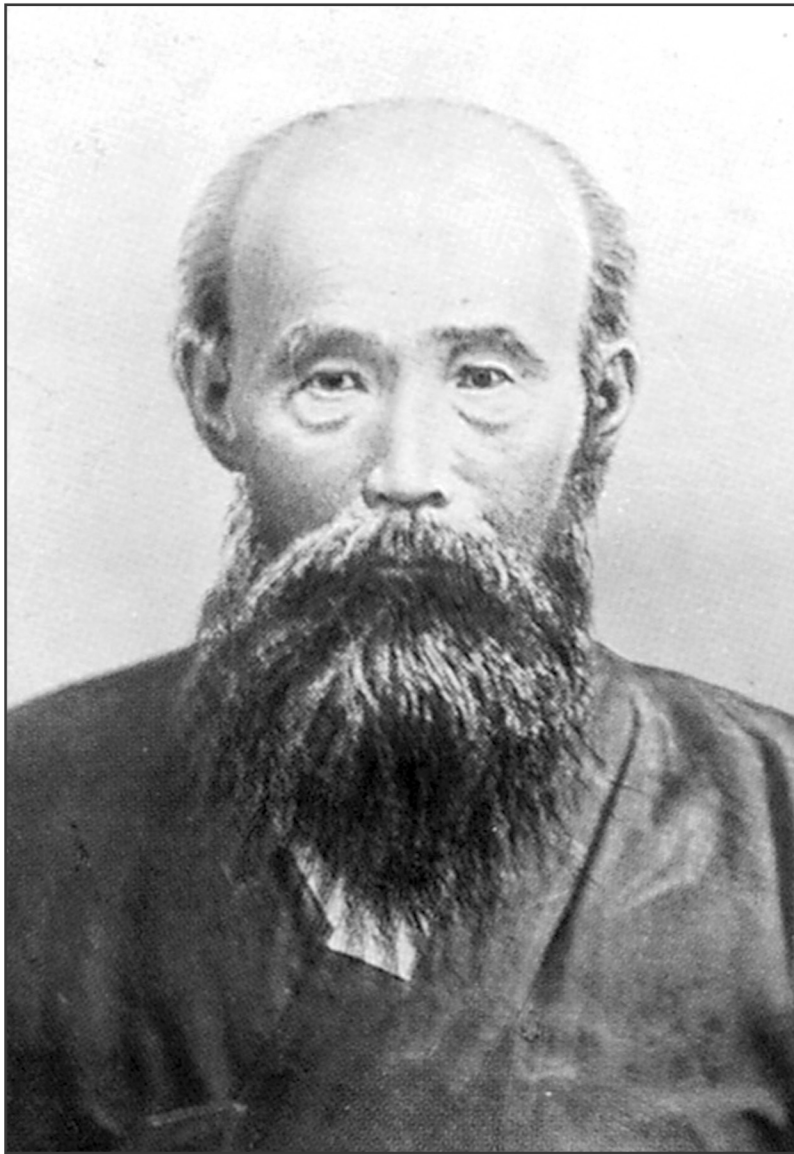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한울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한울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니라.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이르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부친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 배씨(月城 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0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입도하시다.
- 포덕 0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08년(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샘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명이 모여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로 들어가다.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피체되시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해월신사 존영

이천식천 환경보존 행사

<순서>

1. 천도교 환경선언문 낭독

- 기후변화를 헤쳐 나가자! -

2. 문화공연

- 해월 최시형

- 환경파수꾼

<환경선언문>

기후변화를 헤쳐 나가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뜨거워져 물 생명들이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전에 없이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기후약자인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열사병, 가뭄, 산불 그리고 물난리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파멸로 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에너지의 과도한 낭비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해월신사님이 가르침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포덕 160년 8월 14일, 156번째를 맞는 지일기념일에 아래와 같이 ‘천도교환경선언’을 다시금 천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오늘날 심화되는 기후폭동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물질문명이 빚어낸 참사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나부터 먼저 자연보존을 위한 생태적인 삶을 사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사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하늘과 땅, 자연,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사는 일체임을 인식하고 잘 보존하여 아름다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하나. 우리는 오늘의 ‘천도교환경선언’을 이웃과 사회와 온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널리 펼쳐 나간다.

포덕 160(2019)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해월 최시형

♩ = 64

박용진 작사/작곡



한 - 울 님 마음 힘써 기르 라는 양 천 주 설 펼 치 셴 고
일 천 팔 백 이 십 칠 년 경 상 북 도 경 주 에 서 나 시 었 죠



경 천 경 인 경 물 삼 경 사 상 통 해 한 울 타 리 전 하 셴 죠
초 명 경 상 호 는 해 월 본 관 경 주 동 학 발 전 크 신 업 적



동 학 의 참 진 리 를 깨 우 치 며 동 학 포 교 에 정 진 했 고
교 조 신 원 운 동 을 전 개 하 고 교 세 확 장 에 몰 두 했 죠



북 도 중 주 인 임 명 천 도 교 의 제 2 세 교 조 되 - 셴 죠
동 학 농 민 혁 명 이 일 어 나 자 무 장 투 쟁 을 전 개 했 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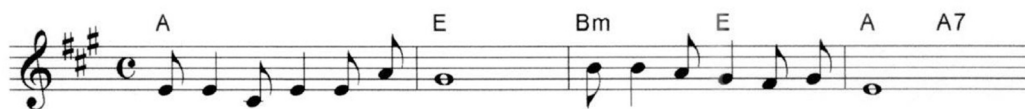
용 담 유 사 동 경 대 전 동 학 경 전 발 간 하 셴 고
신 도 들 과 조 국 사 랑 펼 치 셴 네 척 왜 양 창 의



육 - 임 제 조 직 하 고 육 - 임 소 설 치 하 셴 죠
동 학 발 전 헌 신 하 다 순 교 하 신 해 월 최 시 형

환경파수꾼

박용진 작사 / 작곡



이 세상은 모두의 소중한 축복의 땅
이 세상은 모두의 소중한 감사의 땅 -



영원히 가꾸어 살아갈 우리 모두의 터전들
영원히 지켜서 이어갈 우리 모두의 터전들



푸르른 나무가 모여서 푸른 산과 들을 이루고
자그만 실천이 모여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맑은 물 서로가 어울려 맑은 강과 바다 이루네
모두의 실천이 어울려 아름다운 세상 만드네



환경 파수꾼 노래 속에 - 즐겁게 서로가 노래해



환경 파수꾼 마음 속에 우리모두가 지켜요

